

빨물 깃든 남도의 서정...시인의 향기가 그림습니다

송수권 시인 1주기...기념사업회 추진

순천대 제자·후배·고흥 작가회의 등 참여

생가 보존 등...송수권시문학상 내실있게

전라도 정서를 특유의 서정적 언어로 노래한 송수권(1940~2016) 시인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는 평생 향토적 서정과 민중의 한을 자신만의 시어로 형상화했다.

1940년 고흥에서 태어난 시인은 순천사범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문학사상'에 시 '산문에 기대어'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생전의 시인은 시작 활동 외에도 남도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남도 음식과 남도 사투리 강의 등을 매개로 남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

고인은 지금까지 '꿈꾸는 섬', '아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자다가도 그대 생각하면 웃는다', '시골길 또는 숲동' 등의 시집과 산문집 '다시 산문에 기대어', '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접고' 등을 펴냈다. 또한 김영랑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소월 시문학상, 금호문화재단 예술상, 전라남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송수권 시인 1주기(4월 4일)를 맞아 '(사)송수권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창립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순천대 문예창작과 제자들, 문단 후배인 김선태 시인(목포대 국문과 교수), 고흥작가회의 회장 남선현 시인, 고흥 출신 천창우 시인(인문사회학국가연구원)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설립취지문에서 "본회는 우리 민족 전통서정 시산맥을 이끌어온 평전(平田) 송수권 시인의 문학과 문



남도의 서정과 민중의 한을 노래했던 송수권 시인을 기리는 기념사업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 광주일보 인터뷰 당시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에 함의된 역사적, 민족 고유의 선풍(仙風), 그리고 향토 언어의 생애적 가치를 전착한 이른바 '호남학'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측은 내달 1일 고흥군문화회관 송수권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 계

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제정 등을 예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품꽃시인'으로 알려진 나태주 시인을 이사장으로, 상임자문위원에 '송수권시문학상' 1회 수상자인 강희근 경상대 교수를, 상임이사에 천창우 시인을 추대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설립은 당초 송수권 시인 생전 당시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송 시인 타계 직후 순천대 문창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오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실무를 담당해온 천창우 시인은 "기념사업회 추진은 송수권 시인이 문학을 통해 담아낸 고흥의 향토와 대(竹), 빨물이 깃든 남도인의 토착정서를 계승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송수권시인의 삶과 정신, 문학세계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시인의 생가 보존사업, 유택의 시비(詩碑) 제작 및 공원을 비롯 지역 문인 육성을 위한 송수권 시문학고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생가와 유택은 고흥군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다.

특히 생가와 유택 일원(두원면 학림리)을 고흥의 문화 테마공간으로 만들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에 문학을 덧입힌다는 복안이다. 또한 전국 문학인 및 관람객 탐방을 유도하기 위해 작품 및 배경이 되는 공간의 콘텐츠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로 3주년을 맞는 '송수권시문학상' 운영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군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업회가 주축이 돼 시상식과 시낭송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학상 분야를 송수권문학상 대상, 송수권문학상 평론연구상, 송수권향토문학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상식(10월 예정)에 맞춰 진행되는 시낭송회도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인의 부인 김연영 여사는 "기념사업회 추진은 유족으로서의 고마운 일"이라면서 "남편이 지향했던 문학정신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뉴욕 맨하탄 53번가에 자리한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이하 모마)은 근현대 미술의 보고(寶庫)다. 19세기말부터 21세기 현대까지 회화, 조각, 사진, 영화, 그래픽 아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20만 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건물 중앙에 자리한 야외조각공원이 시선을 끈다. 삭막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원이라니. 관람객들은 세계적인 조각작품과 나무, 꽃으로 단장된 공원엔처에 앉아 특별한 망중한을 즐긴다.

이 야외조각공원의 이름은 에비

였던 미술관 부지를 기꺼이 내놓은 데 이어 피카소의 명작 '아비뇰의 처녀들'과 같은 걸작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후원금을 쾌척했다.

그녀의 문화후원은 여섯째 아들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101)에 의해 절정을 이뤘다. 1915년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1946년 가족이 소유한 체이스 내셔널 은행에 입사한 후 체이스맨해튼 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를 지냈다. 형제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사업을 주로 다루는 록펠러재단의 수장을 맡았다. 특히 그는 체이스맨해튼은행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업의 사회공헌예산 중 일부

록펠러 가문이 남긴 것

알드리치 록펠러공원, 모마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1874~1948)의 기부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미국의 석유왕 존 D.록펠러(1874~1960)의 부인인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는 1929년 탄생한 모마(MoMA)의 개관(開館)공신이다. 그녀는 뉴욕 사교계의 '마담 트리오'로 불렸던 메리퀸 설리만, 릴리 블리스와 함께 유럽에 필적한 만한 근현대 미술관을 뉴욕에 건립하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뉴욕은 월스 트리트의 추가 대폭락(블랙먼데이)소크로 최악의 불황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대부호의 부인이었던 세 사람은 천재적인 큐레이터 알프레드 바(모마 초대관장)의 미술관 건립 제안을 받고 흔쾌히 뜻을 모았다. 종종 유럽의 미술관들을 관람하면서 느꼈던 문화적 열등감(?)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했다.

이중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의 공이 가장 컸다. 록펠러 가문의 소유

를 문화·예술 분야에 할당하자고 건의해 미국사회에 메세나라는 용어를 알렸다.

무엇보다 그는 모친에 이어 모마의 큰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록펠러 가문이 오랜 세월 소장해 온 수백 점 작품을 기증하고 미술관 사회 의장도 여러번 맡았다.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의 100세 생일을 기념해 메인 주(州) 국립공원에 인접한 120만 평 이상의 부지를 기증하기도 했다.

최근 데이비드 록펠러가 101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자 미국 문화계가 큰 슬픔에 빠졌다. 특히 89세 생일을 맞았던 지난 2005년, 자신이 세상에 떠날때 모마에 1억달러(약 1300억 원)를 기부하라고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삼 록펠러 가문의 메세나가 조명을 받고 있다.

오늘날 뉴욕, 나아가 미국미술이 현대미술의 메카로 부상한 데에는 록펠러와 같은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밑거름이 됐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가문이 어디 없을까?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천원의 낭만' 팝카펠라 그룹 '원달러' 공연

4월 3일 광주문예회관

'천원으로 누리는 클래식 향연' 매달 두 번째 월요일 열리는 행복한 문화축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4월 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무대의 초대 손님은 팝카펠라 그룹 '원달러'다. 풍성한 중저음부터 청량한 음색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다섯 남자'로 구성된 '원달러'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편곡으로 무장한 곡을 통해 유쾌함과 대중성을 지향하는 그룹이다.

'쉐렉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탄탄한 기본기의 다섯 남자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주는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다.

2011년 결성후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온 '원달러'는 자작곡을 비롯해 펠라, 에니메이션 음악, 영화 OST, K-POP, 트



로트, 재즈, 한국음악과 가곡,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앨범 수록곡인 작곡 '밀리터리 스푼'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 OST 'The lion sleeps tonight',

'김중옥 찾기' OST '두 번째 첫사랑' 등을 들려준다. 특별출연으로 플루티스트 비비아나 킵이 연주를 들려준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헤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10년간 에세이 베스트 셀러

헤민 스님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에세이로 집계됐다.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지난 2007년부터 이달 13일까지 10년간 판매된 에세이의 누적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헤민 스님의 또다른 책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도 에세이 분야 많이 팔린 책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2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안철수의 생각'은 3위를 차지했다. 5위는 공지영 작가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가 올랐다. 뒤를 이어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8위),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9위)에 올라 스님들이 발간한 책들이 에세이 분야에서 인기를 끌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바뀐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3월21일 공포)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바뀌고, 등 록문화재 대상범위는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된다.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 재난 예방단계 사책을 강화하기 위

한 법적 기반도 정비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산·학·연이 연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그밖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지 받은 자의 권리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봉주 前 국회의원

전여옥 작가

남희석 방송인

진중권 교수

안형환 前 국회의원

외부자들

OUTSIDER

매주 화요일 밤 11시

CHANNEL A